

한국 창세신화의 ‘속이기’ 모티프를 통한 트릭스터의 이해

신연우*

〈차례〉

1. 머리말
2. 한국 창세신화에서 속이기의 양상
3. 창세신화의 트릭스터담의 면모
4. 트릭스터의 신화적 이해
5. 맺음말

〈국문요약〉

우리 창세신화 속에는 인세차지 경쟁담이 들어 있다. 그 중요한 화소는 꽃 피우기 경쟁으로, 속임수로 이긴 자가 이 세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창세신화의 속이기의 양상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 세계를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만들었다. 둘째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근원적으로 부조리와 악이 존재한다. 이 둘은 상호 모순되면서 공존한다. 석가는 창세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선과 악의 공존처이다. 이것이 우리 창세신화가 보여주는 세계 인식의 깊이이다. 세상을 단순히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선 속에 있는 악을 생각하고 악 속에서 선을 보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원형적 관념으로부터 트릭스터의 여러 가지 다양하고 모순되는 면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모들이 생겨난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그는 창조하는 자이면서 어리석은 실패를 전전하는 자이기도 하다. 둘째 경계선상에 있는 이중성을 갖는 자이다. 셋째 속이기와 변신에 능한 자이다. 넷째 식욕 성욕 등 탐욕이 심한 자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

우리 설화의 트릭스터가 단순히 속고 속이는 우화적 동물/인물, 탐욕과 성욕으로 점철된 인물로 상정되거나 또는 조선후기라는 시대성으로 사회적 의미를 한정하는 것으로만 논의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였다. 트릭스터를 하나의 신화적 원형으로 볼 때 이는 신화의 근원인 창세신화에 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창세신화에 보이는 창세의 질서와 창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무질서의 이중성은 트릭스터형 인물의 이중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동시에 사회적 악과 무질서의 이유가 된다는 창세신화의 세계 이해는 세계를 선과 악의 복합체로 인식하는 민중적 이해의 소산이다. 세계는 지속적으로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악 또는 무질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사회가 선악의 복합체이듯이 우리 개인도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의 복합체이다. 이 점이 트릭스터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회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게 마련이기에 선과 질서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경직되어 가는 선과 질서에 시비를 걸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개인들이 트릭스터들이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는 일은 없기에 트릭스터 이야기는 언제나 묘한 매력을 가지고 다가온다.

주제어: 한국 창세신화, 인세차지경쟁, 트릭스터, 선과 악, 이중성, 경계성, 속임수(속이기)

1. 머리말

우리 창세신화 속에는 인세차지 경쟁담이 들어 있다. 그 중요한 화소는 꽃피우기 경쟁으로, 속임수로 이긴 자가 이 세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속임수, 속이기라는 모티프는 주몽신화에도 나오고 탈해신화에도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흥미 있을 뿐 아니라, 주목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리스에는 프로메테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인물이 속임수를 쓰고 있고 구약성서에서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다. 속임수는 세계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화소인데 아직 그 의미가 깊이 탐구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것은 선행연구의 숫자로도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는 김현선이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양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또 외국 신화와 비교한 것이 있다.¹⁾ 그 의미에 관해서는 속임수를 쓴 석가의 승리를 “생명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아는 경작재배의 단계인 문화적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²⁾으로 보아, 농경의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종성도 꽃피우기 경쟁을 농경 원리와 연관지으면서 본토와 제주도의 차이를 지적했다.³⁾ 유정민은 한국·유구·몽골의 꽃피우기 경쟁담을 비교하였는데, 현상 비교를 착실하게 했고, 의미에 대한 깊은 천착은 없다. “석가가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차지하고 싶었던 이유가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소중히 보존해주고 다스리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⁴⁾는 것이 결론이어서 지나치게 소박하게 처리하고 말아 오히려 의미를 축소

1) 김현선,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33~174면.

2) 김현선, 『본토지역의 창세신화』, 위의 책, 72면.

3)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12~123면.

4) 유정민, 『‘꽃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적 분포와 변이』,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68~69면.

시킨 느낌이 든다.

신화에서 속임수를 쓰는 인물을 흔히 트릭스터(trickster)라고 한다.⁵⁾ 그렇다면 우리 창세신화의 속이기는 트릭스터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김기호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기호는 한국의 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트릭스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아동·청소년 심리학의 관점에서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세 과정으로 해명하였다. 호랑이나 토끼 이야기는 일종의 우화여서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하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이지만, 트릭스터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다루며 호랑이나 토끼는 그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는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주몽, 탈해 그리고 창세신화의 석가 등을 트릭스터와는 무관한 신격체로 단정짓고 있다.⁶⁾ 이한길은 <해님 달님>설화가 속고 속임의 기본 특성에 호랑이의 食의 기호와 여성으로의 변신 욕망을 지적하여 호랑이가 트릭스터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나수호는 석사논문에서는 토끼를, 박사논문을 통해서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대상으로 한국 트릭스터담의 성격을 검토했다. 이들이 보여주는 사기꾼, 피쟁이, 오입쟁이의 면모를 검토하는 기반으로 ‘경계성’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두었다.⁸⁾ ‘경계성’은 트릭스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성격의 근원을 해명하는 적절한 개념이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로, 한국의 트릭스터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유교적 사회 배

5) 우리 학계에서 트릭스터에 관한 연구는 조희웅, 김열규에 의해 기본적인 시각이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132~144면;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385~416면.

6) 김기호,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01, 166면; 김기호, 『호랑이 설화에서 트릭스터 호랑이의 발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221~248면.

7) 이한길, 『해님 달님 연구- 트릭스터로서의 호랑이』,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295~317면.

8)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1, 23면.

경에서 “규범과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이며 “집단보다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반영웅적 성격을 띤다.”⁹⁾고 한 것은 사태를 조선 후기 사회의 경우로 한정시켜서 ‘경계성’의 신화적 의의를 크게 축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계성’의 문제가 특정한 사회적 조건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트릭스터 이야기가 전세계적이며 통시적으로도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수호의 연구에서 빠져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왜 경계성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터너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연구를 수용하여 통과제의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았지만 트릭스터를 통과제의만으로 보는 것은 미흡하게 여겨진다. 정만서 등의 속이기와 오입 등이 조선후기 유교 사회에 대한 反英雄¹⁰⁾의 행동으로서 통과제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통과제의 언급 없이도 잘 설명될 수 있거나 지나치게 당연한 사실의 지적으로 그치기 쉽다.

이상의 연구는 트릭스터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지만 자료를 더 확대하며 더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기호가 트릭스터와 무관하다고 단정한 창세신화에는 속임수로 세상을 빼앗는 인물이 등장한다. 속임수 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트릭스터의 행적에 비견될 만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원오도 무속 신화 <창세가>에서 꽃피우기 시합을 한 석가를 ‘신화적 트릭스터의 대표적 예’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¹¹⁾ 당연히 우리 서사문학의 첫장을 장식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며 이는 문학에서의 속임수에 대한, 그리고 트릭스터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계성의 원초적 모습을 제시하여 동물 우화담이나 조선후기 건달형 인물로 한

9) 나수호, 위의 논문, 229면.

10) 나수호, 위의 논문, 183면.

11) 최원오, 『거짓말 구비서사시의 서사적 성격과 신화적 기원』, 『기호학연구』 29집, 2011, 169면.

정되기 쉬운 트릭스터의 근원적 면모를 창세신화를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물론 트릭스터를 심리학과 사회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트릭스터의 이해를 위해서 신화적 조명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무망한 작업이 아님은 트릭스터 이야기가 치료 의식에 사용된다는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¹²⁾ 가령 자기 눈을 뺏다 졌다 하는 나바호 인디언의 트릭스터 코요테 이야기는 눈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의례로 이용된다. 우리는 엘리아데(M. Eliade)를 통하여 창세신화가 바로 치료 의례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트릭스터 이야기는 창세신화와 마찬가지로 원시적 무질서로 돌아가 다시 질서를 창조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인다.

트릭스터 연구는 서양에서 비롯되었다. 나수호는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을 통해 서양에서의 트릭스터 연구사를 정리해서 보여주었다. 이 중 우리의 주된 관심인 이중성 또는 경계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레비스트로스와 터너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북미 원주민의 트릭스터인 코요테와 까마귀는 삶과 죽음, 농사와 전쟁,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사이에서 먹이를 스스로 잡지 않는 육식동물이라는 점에서 이항대립의 중개자(intermediary in binary opposition)의 역할을 한다고 해명하였다.¹³⁾ 빅터 터너는 직접 트릭스터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통과 의례에서 반구조적 기능을 하는 리미널리티 개념 구성이나,¹⁴⁾ 은템부 족의 쌍둥이의례를 통해서 통과 의례적 전이성, 이중성을 탐색한 것이 트릭스터 이해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그 모든 대립관계는 회복된 통일체 스스로를 위협하게 하는 바로 그 잠재력으로 더욱 보강된 그 통일체 안에서 극복되거나 한계를 넘게 된다.”¹⁵⁾고 한 것은 우리 창세신화에도 일정부분 적

12) Lewis Hyde, *Tricksters makes this world*, Farrar, Straus and Giroux : New York, 1998, p. 12. "Most important, Navajo Coyote stories are used in healing rituals."

13) Claude Le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gy*, PenguinPress, 1968, pp. 206~231.

14) 빅터 터너, 이기우·김익두 옮김, 『체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33~100면.

15)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6, 90면, 143면.

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윌리엄 도티와 윌리엄 하인즈는 트릭스터 연구를 문학적 연구, 사회학적 연구, 종교학적 연구, 심리학적 연구 등 주제별로 연구사를 검토하였다.¹⁶⁾

먼저 우리 창세신화의 인물 속에서 트릭스터로서의 면모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창세신화의 속이기 모티프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따져본다. 영웅신화에서의 속이기는 다루지 않고 창세신화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집약한다. 선행연구에서 속임수를 농경원리와 연관 지은 것을 수용하고 그보다 더 확대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창세 신화 속 속이기의 양상을 다시 검토한다.

2. 한국 창세신화에서 속이기의 양상

김현선이 모아놓은 자료를 이용하여, 꽃피우기 경쟁이 나타나는 신화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¹⁷⁾

- (1) 함경도 함흥, 김쌍돌이 구연본 <창세가>, 1923년 채록
- (2) 평안도 강계, 전명수 구연본 <창세가>, 1931년 채록
- (3) 함경도 함흥, 강춘옥 구연본 <생긔>, 1965년 채록
- (4) 평안도 평양, 정운학 구연본 <삼태자풀이>, 1966년 발표
- (5) 강원도 강릉, 박용녀, <당고마기 노래>, 1977년 발표
- (6) 경상북도 영덕, 최음전, <당금아기>, 1971년 채록
- (7) 경상북도 울진, 권순녀, <순산축원>, 1975년 채록

16) William G.Doty and William J. Hynes, “Historical Overview of Theoretical issues; the Problem of the tricksters”, William G.Doty and William J. Hynes Ed. *Mythical Trickster Figure- 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3, pp. 13~32.

17) 김현선, 앞의 책, 6부 창세신화 자료의 소개와 해설.

- (8) 제주도 문창헌 필사, <초감제><천지왕본>, 1980년대 필사
- (9) 제주도 서귀포, 박봉춘 구연, <초감제><천지왕본풀이>, 1937 발표
- (10) 제주도 김두원 필사, <초감제><천지왕본>, 1963 발표
- (11) 제주도 조천, 정주병 구연,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 1980 발표
- (12) 제주도 구좌, 고대중 구연, <천지도업>, 1962 채록
- (13) 제주도 한경, 강일생 구연, <베포도업침>, 1974 발표
- (14) 제주도 표선,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1991 발표

크게 본토와 제주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상북도의 7편은 미륵과 석가가 주체이고 제주도의 7편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싸움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꽃피우기 경쟁만을 고려하기에 각편의 상세한 비교는 불필요하다. 가장 처음 자료인 (1) 김쌍돌이 구연본의 해당 부분을 보자.

너와 나와 한 방에서 누어서/ 모란 꼬치 모랑모랑 피어서
 내 무렵헤 올라오면 내 세월이요/ 너 무렵헤 올라오면 너 세월이라
 석가는 도적심사를 먹고 반잠 자고/ 미력님은 찬잠을 잤다
 미력님 무렵 우에/ 모란 꼬치피여 올낫소아
 석가가 중등사리로 썩거다가/ 저 무렵헤 쏘져다¹⁸⁾

결국 석가가 미륵에게서 이 세상을 빼앗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이 세상은 가문마다 기생, 무당, 역적, 백정 등이 나는 불완전한(“말세같은”, 235면)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뒤집어보면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한 불완전하기에 그 이유 또는 원인을 석가에게 전가한 것이기도 하다. 세상이 불완전한 것은 부정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세상은 원래 악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¹⁹⁾ 시원에서부터 불완전하다면 혹시

18)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 김현선, 앞의 책, 234면.

19) 악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뒤집어서 악의 기원으로 설명하는 것을 ‘역설의 법칙’이

이 불완전은 도저히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럴 경우 석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앞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표면적으로 석가가 악행을 하는 것과는 달리 그 앞의 내기는 이 세계는 결국 이 세계를 창조한 선한 미륵의 것이 아니라 미륵 이후의 인물인 석가의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첫 번째로 병을 공중에 달고서, 끈이 끊어지는 쪽이 지는 내기에서 석가가 졌다. 두 번째로 강을 얼어붙게 하는 내기에서도 석가가 졌다.

그러나 진 것이 진 것이 아님을 말하는 데 이 신화의 묘미가 있다. 미륵은 冬至채를, 석가는 立春채를 올려쳐서 강을 얼게 했다는 것을 보자. 강이 얼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잘 한 것이 아니다. 봄이 되어 강물이 녹아야 농사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내기도 병의 줄은 끊어져야 병이 뒤집히고 그 속의 물이 흐를 수 있다는 설정으로 이해된다. (2)전명수 구연 <창세가>에서는 내기에 진 것이 석가의 세상이 되는 징조라고 대놓고 말한다.

미륵님이 하난 말이/ 그걸 봐라/ 네 당네기 머릿구나 하니
 서가열세존님이 말하기를/ 내 당네가 되누라고 그럽네다
 네 당네가 어드래서/ 되누라고 그러느냐
 내 당네가 되면쪼차/ 금목수화토 오행정기/ 나누라고 물부텨 남메다
 그 술이 따에 흘너/ 그때부텨 도랑물과/ 우물물과 새암물과
 큰 강물이 되엇슴메다²⁰⁾

표면으로는 내기에 졌지만 실제로는 인간세상을 차지할 자격이 석가에

라고 할 수 있다. 오바야시 타로오는 ‘역설의 법칙’이 프로메니우스의 말이라고 하면서, ‘사체가 썩어가면 구더기가 들끓는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구더기에서 인간이 생겨났다고 하는 신화가 생겼다.’고 하는 예를 들었다. 大林太郎 저, 아옥인 부 · 권태효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102면.

20) 김현선, 앞의 책, 241면.

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꽃을 흠쳐오는 화소에서 석가는 꽃을 중간을 꺾어다가 자기에게로 옮겨왔다고 한다. 이는 자연의 꽃을 인위적으로 손을 대어 키운다는 의미일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식물은 인간이 섭취하기에 곤란하다. 미륵은 온잠을 자는데 석가는 눈을 반은 뜨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자연은 그대로 늘 같은 모양이고 속임수가 없지만, 인간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늘 주위를 살펴야 했다.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식물을 개량하여 사람에게 적절한 식용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의 밀이며 옥수수며 쌀 등 主穀이다. 석가의 속임수는 겉으로는 악한 행동으로 보였지만 이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²¹⁾

그러나 이렇게 해서 미륵으로부터 빼앗은 석가의 세상은 부조리와 악을 없애지 못한다. 가문마다 과부 나고 역적 나는 세상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리/ 배 곯은 사람이 많았구나/ 입을 것이 없어서레/ 옷 벗은 사람이 많았구나/ 거리 거리 걸객이라/ 흉년 세월이 돌아와서 집집마당 울음 이요/ 간곳마당 근심이라”²²⁾ 와 같은 세상이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인간이 살 수 있게 자연을 개량하였지만 인간 사회에는 도둑, 흉년, 역적 같은 일종의 무질서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 창세신화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천지가 개벽하고 해와 달이 두 개씩 생겨나서 사람들이 타죽고 얼어죽게 되었다. 이에 천지왕 또는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활을 쏘아서 하나씩 남겨두어 사람들이 살기에 적절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연은 그대로 완전하다. 해와 달이 두 개씩인 것은 자연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된다.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린 것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로 자연을 개량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대별왕 소별왕 형제는 이 세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다투고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세상을 차지한 결과 세상

21) 같은 논지를 김현선, 위의 책, 72면; 박종성, 위의 책, 110면에서 찾을 수 있다.

22) 정운학 구연, <삼태자풀이>,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1994, 295면.

에는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부 지역 창세신화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인간의 삶에 맞도록 개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세상에는 악 또는 무질서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주를 창조한 신이 만든 세계는 그 자체로는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한번 개량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개량은 신이 만든 것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신화에서 속임수 또는 흠치기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세상을 개량해도 세상에는 또 다른 종류의 무질서가 그로 인해 존재한다. 악 또는 무질서는 창조의 다른 측면인 것이다. 인간에게 완전한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질서도 창조하고 만든다.

달리 말해보면 창조는 창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질서 또한 생겨난다. 창조된 것은 그대로 있을 수만 없다. 창조된 것은 낡게 마련이며 새것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를 생성해낼 때마다 새로운 무질서 또한 생겨난다. 또는 뒤집어 말하면 질서가 낡아가면 무질서가 생겨나면서 질서를 새롭게 뒤집어야 할 필요를 제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자. 첫째 미륵과 석가 또는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 세계를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만들었다. 둘째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근원적으로 부조리와 악이 존재한다. 이 둘은 상호 모순되면서 공존한다. 석가는 창세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선과 악의 공존처이다. 이것이 우리 창세신화가 보여주는 세계 인식의 깊이이다. 세상을 단순히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옳 속에 있는 옳을 생각하고 악 속에서 선을 보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인식이다.

3. 창세신화의 트릭스터담의 면모

우리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우리 창세신화에서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석가 또는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세상을 차지했다. 둘째 속임수는 인간이 살 세상을 만드는 창세의 과정과 겹친다. 셋째 속임수로 차지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갖는다. 즉 석가 또는 소별왕은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면서 인간이 살기에 어려운 악과 부조리가 공존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중성을 가지며 당연히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함께 가진 신화적 인물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 트릭스터라는 개념이 가장 가깝다. 아니 이러한 관념을 트릭스터의 원형적 모습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²³⁾ 이런 점에서 트릭스터를 원형(archetype)으로 이해한 칼 융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융이 트릭스터를 미분화된 의식이며 부정적 요소인 그림자의 표상으로 보는 것²⁴⁾은 일면적이다. 미분화된 것이 아직 성장이 되지 않아 미숙해서가 아니라 질서 안에는 반드시 무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세계관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 속에서 악을 보고 악 속에서 선을 보는 보다 성숙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형적 관념으로부터 트릭스터의 여러 가지 다양하고 모순되는 면모들이 생겨난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그는 창조하는 자이면서 어리석은 실패를 전전하는 자이기도 하다. 둘째 경계선에 있는 이중성을 갖는 자이다. 셋째 속이기와 변신에 능한 자이다. 넷째 식욕 성욕 등 탐욕이 심한 자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

첫째 그는 창조자이면서 어리석고 실패를 많이 한다. 창조자로서의 면

23) 김열규는 동명왕, 유리, 초공본풀이의 주자선생 등을 사례로 들고 '원형적인 트릭'을 추정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96, 388~390면.

24)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앞의 논문, 14면; Paul Radin, 같은 책, 209면.

모는 우리 창세신화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속임수로 불을 가져오는 코요테 이야기인 아메리카의 클라매쓰 인디언 설화는 트릭스터의 창세신화적 면모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한테 불이 없었을 때, 불은 커다랗고 하얀 바위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 바위는 우레의 것이었고 우레는 불의 보호자였다. 코요테는 우레에게 주사위 놀이를 하자고 말했다. 코요테는 온갖 종류의 게임에서 귀신같이 속였다. 우레를 계속 정신없이 어지럽혔다. 자기 주사위를 뒤집어서 모양이 새겨진 쪽이 보이게 했다. 우레의 주사위를 뒤집어서는 아무 것도 없는 쪽이 보이게 했다. 그는 우레를 정신없게 하고 눈을 깜빡이게 했다. 그리고는 섬광처럼 순식간에 우레의 묶음에서 세는 막대를 빼돌려 자기 것에 얹어 놓았다. 결국 우레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졌다. 코요테는 세는 막대를 몽땅 갖고 있고, 우레는 하나도 없었다. “아저씨, 내가 이겼어요.” 코요테가 말했다. “불을 넘겨주세요.” 우레는 코요테가 속임수를 썼다는 걸 알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었다.²⁵⁾

이 밖에도 아시니보인(Assiniboine) 족은 트릭스터인 거미인간 익토미(Iktome)가 땅과 계절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²⁶⁾ 어리석음과 실패담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사례를 들 수 없을 정도이다. 강에 자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뛰어들었는데 돌에 부딪쳐 정신을 잃는다. 정신 차리고 보니 나무에 달려 있는 자두가 물에 비친 것이었다.²⁷⁾ 자기 향문을 태우고 자기 창자가 길에 흘러내리게 되기까지 한다.²⁸⁾

이 대칭성은 앞에서 본대로 창조에 질서와 무질서가 함께 존재한다는

25) Richard Erdoes and Alfonso Ortiz, *American Indian Trickster Tales*, Penguin Books, New York, 1999, pp.18~19. 일부 요약.

26) Richard Erdoes and Alfonso Ortiz, op. cit. p.93.

27) Paul Radin, 같은 책, 14면;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89면.

28) Paul Radin, 같은 책, 17~18면; 나수호, 위의 논문, 89~90면.

것을 말해준다. 무질서는 창조의 실패이다. 그러나 창조에는 무질서가 필연적이기도 하다. 무질서는 창조의 일부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무질서와 악이 더 많은 것으로 인간에게 인식된다. 사실은 세계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계절이 질서 있게 순환되고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갈마들고 태양이 알맞은 거리에 있는 등 전체적으로 자연은 질서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이 살기에는 불편한 것이 많다.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다. 사막은 너무 많고 정글도 그렇다. 홍수로 사람이 떠내려가고 지진으로 죽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현상은 그의 창조가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면이 많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이 실패가 더 실감나기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은 창조의 부작용적인 측면에 대한 인간적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창조의 다른 면이다. 거미인간 익토미가 사향뒤쥐가 깊은 물속에서 가져온 조금의 흙을 이용해서 땅을 만들었다는 아시니보인 족의 이야기와 같은 구성인 루마니아의 창세신화는 이를 조금 더 진행시킨다. 창세신인 둠네제울은 악마가 깊은 바다 속에서 가져온 흙으로 조금의 땅을 만들고 잠들었다. 악마는 고생은 자신이 했는데 무시만 당하는 것에 분을 품고 누워 있는 둠네제울을 물쪽으로 굴러 빠뜨리려고 했다. 그런데 둠네제울이 구르는 쪽으로 자꾸만 땅이 생겨나서 물이 사라지고 평평한 땅이 널찍하게 자리잡게 되었다.²⁹⁾

이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주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세상은 창조주의 조력자인 악마와 함께 만드는 것이다.³⁰⁾ 조력자를 악마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모두 그에게 몰아두기 위해서이다. 창조주에게는 선만을 배분하고 조력자에게는 악을 배분한 것이다. 트릭스터는 이 둘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 안에서 이해한다. 그것이 창세신화와 트릭스터담이 나뉘는 지점이다.

이 점이 바로 트릭스터의 두 번째 특징인 이중성, 경계성이기도 하다.

29) 권혁재 외, 『동유럽신화』,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8, 83면.

30) 권혁재 외, 위의 책, 84면.

트릭스터는 창조를 하면서 실패를 하여 무질서를 빚어낸다. 또 죽은자와 산자의 세계를 드나들기도 한다.³¹⁾ 남자이면서 여자가 되어 임신을 하기도 한다.³²⁾ 제주도 신화에서는 소별왕이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이다. 박봉춘 구연본은 꽃피우기 경쟁을 하면서 소별왕의 근심을 전한다. “수명장자를 버력을 주어서 행실을 가르치지마는 우리 형은 못하리라 생각하고” 형의 꽃을 자기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결과적으로 동생이 인간세상을 차지했고 수명장자를 징치한 후에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복과 록을 마련하여, 선악을 구별하고 인간 차지 하옵내다.”³³⁾라고 하였다.

지상의 악을 징치하고 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소별왕은 악을 저지른다는 이중적 성격은 바로 세상의 선이나 악은 선 또는 악만으로 순일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을 위해서 악이 존재할 수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창조 속에는 악도 부산물로 들어 있게 마련이라는 민중적이고도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자기의 존재성을 갖는다. 다른 질서나 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수호는 반 개념의 통과례와 터너의 리미널리티를 이용하여 트릭스터의 주된 성격을 경계성에서 찾았다. 그러나 통과례의 관점에서라면 통과한 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트릭스터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수호는 터너가 사용한 개념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중심이나 주변과 상관없는 초월적인 개념으로 경계성을 사용한다.³⁴⁾ 트릭스터는 창조와 무질서의 이중성을 가지고 그 경계를 넘나든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영원성과 더불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³⁵⁾ 그러므로 그 때 그 때 시대성과 사회성에 맞추

31) Richard Erdoes and Alfonso Ortiz, op. cit. p. 15.

32) Paul Radin, 앞의 책, 22면;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앞의 논문, 94면.

33)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헌선, 위의 책, 405면, 406면.

34)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앞의 논문, 31면.

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목적성을 갖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측면, 이중성이 강조될 때 이들은 종종 쌍둥이 또는 형제로 나타난다. 속임수를 부리는 인물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인물로 인해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기원설화로서의 기능을 부담하게 한다. 쌍둥이뿐 아니라 지상의 선과 악을 놓고 경쟁하는 많은 신화, 가령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여호와와 사탄의 경쟁과 사탄의 승리라는 식의 다툼 등 경쟁하는 신격들의 삽화는 모두 이와 관계된다.³⁵⁾

이 이중성이 하나의 존재 안에 있을 때 그는 모순 덩어리가 되기 쉽다. 세상과 문화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속임수와 악의 근원이기도 하는 것이다. 북미 인디언의 코요테 같은 트릭스터가 이를 대표한다. 왜 신적 능력 또는 신격을 가진 트릭스터가 짐승으로도 나타나는가? 그에 대하여는 조동일의 지적이 참고가 된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 같고 다른 양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했다. 짐승과 사람 사이에는 단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가능한 추론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보다 먼저 나타난 선행 인류가 동식물로 변해 남아 있다고 하는 착상이 생겨났다. 북미대륙의 원주민 사이에 그런 신화가 널리 퍼져 있다. 늑대 비슷한 동물인 코요테가 선행 인류의 변신 가운데 특히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요테의 여행을 노래로 전승한다. 그 주인공은 동물이면서 선행인류이고, 선행인류는 신이로운 존재이므로 신이기도 하다고 한다.³⁶⁾

35) 조희웅은 트릭스터를 '사술을 사용하는 신화적 인물'로 정의하고 그 특징으로 양의성, 중간적 존재라는 점을 든다.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132면.

36) 여기서 선악이 선신과 악신의 변별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신의 양면적 속성에 기인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창세신화의 경우 대별왕 소벌왕은 쌍둥이이고 석가와 미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 천착해보아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두 경우를 나누지 않고, 둘은 따로 둘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동일한 힘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한다.

트릭스터는 대별왕소별왕이 일월을 조정한 것처럼 세계를 재창조하기도 하고 그 둘이 속임수를 써서 세상을 악으로 물들인 것처럼 악하거나 어리석은 것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이중적 모순적 인물이다. 세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은 세계와 자신이 하나라는 점을 말해준다. 세계와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모습으로 변신도 가능하다.³⁸⁾

세 번째로 속이기와 변신에 능한 것도 창조의 이중적 성격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양쪽 세계를 다 알아야 속이기가 가능한 것이다 선하기만 하거나 악하기만 해서는 남을 속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속이기란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다원성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속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속일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세계가 돌아가는 구조를 아는 자이다. 어둠의 나라에 살던 호기심 많은 코요테는 빛의 마을을 갔다가 해와 달을 보게 된다. 그것을 훔쳐오겠다고 하자 추장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코요테는 몰래 가서 해와 달을 훔쳐온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코요테를 추장으로 삼았다.³⁹⁾ 다른 이야기에서는 속임수로 남의 옷과 말을 가져가버리기도 한다.⁴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코요테는 멀리서 해와 달을 훔쳐온다. 속지 않기를 자신하는 사람을 속이는 지혜가 있기에 남의 옷과 말을 훔쳐올 수 있다. 속임수로 해와 달을 가져오는 영웅으로서의 코요테와 남의 옷을 훔쳐가는 코요테는 같은 인물이다. 크고 작은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대별왕이나 미륵이 아니라 소별왕과 석가가 속이는 자이다. 세상을 알

37) 조동일, 『세계문화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25면.

38) 신성성과 속임수를 함께 포괄하는 인물의 원래적인 모습을 무당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무당은 신이 그랬듯이 말로 세계를 만들어간다. 창세 과정이나 여러 가지 기원신화를 말로 또는 노래로 재현한다. 동시에 신이나 다른 인간으로 변신한다. 서울곳의 사제거리에서 보이듯 신을 속여 넘긴다. 엉뚱한 행동이나 말로 희화화한다. 제의의 신성성과 놀이의 오락성이 공존한다. 모순되는 것을 공존하게 하는 것이 트릭스터의 기본 개념일 수 있다.

39) Richard Erdoes and Alfonso Ortiz, op. cit. p. 6.

40) 알폰소 오르티즈, 리차드 에르도스 엮음, 양순봉 외 옮김, 『인디언신화 1』, 아프로디테, 1999, 274면.

기 때문이다. 미륵과 대별왕은 선 일변도의 단순하고 고지식한 신들이다. 정운학이 구연한 미륵의 세계는 ‘차돌로 떡을 삼고 모래로 쌀을 삼아 먹고 쓰고 남고 집집마다 안락하고 간곳마다 희락이가 세화연풍이 절로 들어 오륜삼강이 분별이 되어 천하만민이 즐기는’⁴¹⁾데 반해 석가의 세계는 ‘양반은 상놈 되고 상놈들은 양반이 되고, 배곯은 사람이 많고 입을 것이 없어 옷 벗은 사람도 많고 흉년 세월이 돌아와 집집마다 울음이고 근심이고 남녀노소 구별 없고 남녀간에 평등권을 쓰’⁴²⁾는 세상이다. 그러나 신화는 미륵의 이상화된 낙원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은 석가의 것이다. 석가는 이상과 현실을 알기에 미륵으로부터 세상을 빼앗을 수 있다. 미륵은 현실을 모르기에 석가를 당해낼 수 없다.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는 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된다. 소별왕이 이 세상을 빼앗는 것은 형은 지상의 악인인 수명장자를 징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벼락을 내려서 행실을 가르치지만 우리 형은 못하리라 생각’⁴³⁾했기 때문이다. 형이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별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악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많은 트릭스터형 인물 또는 동물들은 속임수를 통해 인간성 자체를 풍자하거나, 경직되어버려서 인간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회를 조롱한다. 전자는 트릭스터의 항상성을 보여주고, 후자는 트릭스터의 시대적 변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넷째 식욕 성욕 등 탐욕이 심한 자라는 점도 트릭스터의 기본 성격이 창조 즉 생성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하는 이야기로는 긴 성기라든가 처녀를 겁탈한다든가 하는 음담식으로 희화되어 있지만 그 근원은 생산에 대한 소망과 연관된다. 마치 세계를 창조한 거인신이 후세에는 큰

41) 김헌선, 앞의 책, 291면.

42) 김헌선, 위의 책, 295면.

43) 김헌선, 위의 책, 404면.

성기나 거대한 대변 등으로 희화화되어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⁴⁴⁾

위네바고의 왁준카가도 성과 생산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왁준카가는 다람쥐에게 속아서, 상자에 따로 담아 다니던 길었던 음경을 다 갉아먹었다. 그 조각들을 발견하자 왁준카가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각들로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만들어야겠다.” 말하고는 그것으로 수련, 순무, 감자, 아티초크, 땅콩, 샤프클로우, 쌀 등을 만들었다.⁴⁵⁾ 그러나 생산의 원천인 이 음경은 동시에 호수 저 반대편에서 헤엄치고 있는 추장의 딸에게까지 가서 그녀의 성기로 들어가는 이야기⁴⁶⁾로도 전해져 笑話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창세신화의 끝자락에, 석가가 양반집 아기씨를 겁간하여 세 아들을 얻는다는 내용의 제석본풀이가 연결되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다. 꽃피우기 경쟁담 안에는 성적인 면모가 없지만 그에 이어지는 제석본풀이, 당금애기 신화는 바로 석가의 성적인 생산성을 해명해준다. 당금애기를 속이면서 서서히 접근해 들어가 결국 임신시키는 석가의 모습은 바로 트릭스터의 면모를 보여준다. 정운학 구연본은 미륵이 숨겨놓은 해와 달을 석가가 찾아내고 인간에게 물과 불을 마련해준 뒤 바로 서장애기를 찾아가서 세 아들을 얻는다. 박용녀 구연본에는 석가가 꽃을 도둑질했지만 설법을 할 줄 몰라 미륵에게 묻자 미륵이 “동해물을 서어로 넘기고 서해물을 동으로 넘기고 골골이 관장을 만들고 …… 도둑놈은 잡아 죽이고 수미산을 찾아 당고마기를 찾아 들어가서 재미쌀을 서말 서되를 해다가 우리나라 국재를 붙이렸다”⁴⁷⁾ 하고 제석본풀이가 이어진다. 이는 제석본풀이가 창조의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최음전 구송본은

44)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80~91면.

45) Paul Radin,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1956, p.39;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앞의 논문, 2002, 108면.

46) Paul Radin, 앞의 책, 19면,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앞의 논문, 2011, 91면.

47) 김현선, 앞의 책, 358면.

제석본풀이 중간에 미륵과 석가의 꽃피우기 내기가 들어 있어서 역시 제석본풀이와 꽃피우기 경쟁이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생긴 일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제석본풀이를 네 단락 구성을 볼 때 각각이 득녀, 임신, 출산, 신직부여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제석본풀이가 생산에 대한 소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이에 부합한다.⁴⁸⁾ 널리 알려진대로 동해안의 당금애기는 특히 둘의 性合 부분의 흥미요소를 부각시켰다.

4. 트릭스터의 신화적 이해

이 논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논점 중 하나는 우리 설화의 트릭스터가 단순히 속고 속이는 우화적 동물/인물, 탐욕과 성욕으로 점철된 인물로 상정되거나 또는 조선후기라는 시대성으로 사회적 의미를 한정하는 것으로만 논의되는 것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트릭스터를 하나의 신화적 원형으로 볼 때 이는 신화의 근원인 창세신화에 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창세신화에 보이는 창세의 질서와 창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무질서의 이중성은 트릭스터형 인물의 이중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논의했다.

이런 인식은 사실 신화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다. 캠벨은 창조자의 멍청한 아우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멜라네시아 신화를 하나 소개했다. 형인 토 카비나나가 나무로 툼이라는 물고기를 만들어 다른 물고기들을 모아오자 동생도 이를 따라서 물고기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그만 상어를 만들고 만다. 형이 한심해하며 말한다. “너는 참 어쩔 수 없는 위인이로구나. 네가 저걸 만들었으니 우리 후손이 저 상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든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장차는 사람까지도 먹어치울 것이다.”⁴⁹⁾

48) 신연우, 「〈제석본풀이〉 서사구조의 서사성과 역사성」,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07~136면.

캠벨은 이런 종류의 인물을 “탐욕스러운 돌머리이자 영리한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주 발생론과의 관계에서 풀려난 조물주의 능력의 부정적 광대-악마적 측면은 여흥거리이야기에서 즐겨 다루어진다. 그 실례가 아메리카 평원의 코요테다. 여우 레이나드는 이 코요테의 유럽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⁵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트릭스터라고 부르는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트릭스터는 창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창조는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 진행에 힘을 가하는 것이 이 측면이다. 따라서 부정적 측면보다는 상반적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빅터 터너는 아프리카의 은템부 족의 쌍둥이 의례를 조사하였다. 쌍둥이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신비적인 하나가 경험적으로 둘이라는 모순”이면서 “대립되는 것의 통일”로 이해되었다. 동시에 부족 내에는 다산 경쟁의 의례가 전개되고 큰소리로 음담을 주고 받는다. 이 의례는 “우스꽝스러운 혼란의 표현으로부터 우주 질서의 표현으로, 그리고 또다시 혼란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여가는 의례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쌍둥이로 구현되는 대립관계는 통일체를 위협하게 하면서 그 힘으로 보강되며, “다듬어지지 않은 활력이 구조화된 질서를 나타내는” 이중기능의 질서를 보여준다.⁵¹⁾

이 상반된 하나로서의 이중기능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창세신화들이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쌍둥이로 태어나는 소별왕이나 석가는 해나 불을 찾아주는 등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문화 영웅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무질서와 악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 사회는 속임수로 이루어져 있다. 신이 만든 자연을 벗어나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

49)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287면.

50) 조셉 캠벨 저, 위의 책, 288면, 289면.

51) 빅터 터너, 『의례의 과정』, 앞의 책, 82~143면.

며 문명을 만드는 순간부터 인간은 신을 속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문명은 동시에 인간 사이의 계급과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보인다.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 자연을 벗어나는 문화를 가지는 존재가 된 인간의 양면적 특성이 바로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화의 본모습일 수 있다. 그 모습을 창세신화로 형상화했고 특히 창세의 상반적 측면이 트릭스터 이야기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창조와 함께 창조의 상반적 측면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신화적 사고의 특징이다. 종교적 사고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신화에서는 선과 악을 선명히 나누지 않는다. 그것이 민중이 생각하는 세계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고기가 있으면 상어도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연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무지한 생각이 아니다. 조셉 캠벨이 1920~30년대 미국의 저명한 목사였던 포스딕의 말을 인용한 것은 우리에게도 유용하다.

인간이 감독하고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우주는 그 감독과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넓고 무자비한 우주가 사실은, 우주가 관여하는 무서운 사건과 함께 정연하게 계획되고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여로라는, 순진한 무지가 당연시되고 있는 찬송가나 설교나 기도를 들을 때면 나는 이보다 훨씬 이성적인 남아프리카 종족의 假定을 떠올린다. 어느 관측자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신은 선하고 만인의 행복을 바라지만 불행히도 그에겐 멍청한 아우가 있어서 언제나 신의 일에 훼방을 놓는다고 말한다.’ 그들의 이러한 가정은,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신의 멍청한 아우는, 만인에 대해 무한한 선의를 가진 전지 전능자가 설명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 및 터무니없는 비극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⁵²⁾

52) Harry Emerson Fosdick, *As I See Religi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32, pp.53~54;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288면 각주에서 재인용.

신화적 관점으로는 첫줄의 ‘인간이’는 실은 ‘신이’로 고쳐 써도 무방할 것이다. 바다에 상어가 있듯이 삶에는 어려움 또는 비극이 있게 마련이다. 트릭스터 이야기는 삶의 비극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해준다. 그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상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비극을 보편화 또는 객관화시킨다. 트릭스터를 희화함으로써 삶의 비극적 요소들은 눈물이 아니라 웃음 속에 자리잡는다. 즉 트릭스터 이야기 자체도 신이면서 사기꾼인 이중성, 병의 치료에 쓰이면서도 음담패설의 웃음거리로도 쓰이는 이중성을 갖는 것이다.⁵³⁾

5. 맺음말

세계 보편적으로 전승되는 트릭스터는 하나의 신화적 원형으로서 그 성격이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소년기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면서 극복해나가는 발달심리적 측면에서 조명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경직성과 부조리에 저항하는 반사회적인 경계인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호랑이, 토끼, 여우, 코요테, 거미 등의 동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물적인 근시안적 행태와 이기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고대 중세 근세의 문화영웅으로서 트릭스터를 고찰할 수도 있지만,⁵⁴⁾ ‘현대사를 휘저은 골칫거리 영웅들’을 20세기의 트릭스터로 모아 볼 수도 있다.⁵⁵⁾

53) 창세신화의 주인공이 후대의 트릭스터와 동일하지는 않다. 후대의 트릭스터는 창세신화의 주인공이 많이 축약되거나 그 시대와 사회에 맞게 변형된다. 트릭스터 이야기가 병의 치료에 사용되면서도 음담패설의 웃음거리로도 쓰이는 현상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창세신화는 곳에서 연행되는 측면과 동시에 거근을 가진 음담성 거인설화로 나뉜 것과 관계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더 고찰이 필요하다.

54) 최정은, 『트릭스터 영원한 방랑자』, 휴머니스트, 2005, 1~407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온 창세신화에서 특히 인세차지 경쟁을 하는 창조주체가 속이기를 통하여 세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트릭스터의 신화적 원형적인 모습을 탐색해 보았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동시에 사회적 악과 무질서의 이유가 된다는 창세신화의 세계 이해는 세계를 선과 악의 복합체로 인식하는 민중적 이해의 소산이다. 세계는 지속적으로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악 또는 무질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사회가 선악의 복합체이듯이 우리 개인도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의 복합체이다. 이 점이 트릭스터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트릭스터됨을 발휘하는 존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기 어렵다. 선을 요구하는 사회와 종교 아래에서 이중성, 경계성을 표나게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사회는 그 속성상 선과 질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트릭스터는 안다. 그러나 사회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게 마련이기에 선과 질서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경직되어 가는 선과 질서에 시비를 걸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개인들이 트릭스터들이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트릭스터 설화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마음속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일은 없기에 트릭스터 이야기는 언제나 묘한 매력을 가지고 다가온다.

55) 오치 미치오, 이해원 옮김, 『20세기의 트릭스터- 창조와 파괴의 두 얼굴』, 좋은 사람들, 1999, 1~295면.

참고문헌

-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1~256면.
- 권혁재 외, 『동유럽신화』,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8, 1~339면.
- 김기호, 「호랑이 설화에서 트릭스터 호랑이의 발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221~248면.
-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1~550면.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면.
-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122면.
- _____,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1, 1~259면.
-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411면.
- 신연우, 「<제석본풀이> 서사구조의 서사성과 역사성」,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07~136면.
- 유정민, 「『꽃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적 분포와 변이」,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1~74면.
- 이한길, 「해님 달님 연구- 트릭스터로서의 호랑이」,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295~317면.
-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1~539면.
-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1~231면.
- 최원오, 「『거짓말』구비서사시의 서사적 성격과 신화적 기원」, 『기호학연구』 29집, 2011, 145~175면.
- 최정은, 『트릭스터 영원한 방랑자』, 휴머니스트, 2005, 1~407면.
- 大林太郎, 아옥인부 · 권태효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1~174면.
-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6, 1~311면.
- 빅터 터너, 이기우 ·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1~254면.
- 알폰소 오르티즈, 리차드 에르도스 엮음, 양순봉 외 옮김, 『인디언신화 1』,

아프로디테, 1999, 1~374면.

오치 미치오, 이해원 옮김, 『20세기의 트릭스터- 창조와 파괴의 두 얼굴, 좋은 사람들』, 1999, 1~295면.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1~383면

Hyde, Lewis. *Tricksters makes this world*, Farrar, Straus and Giroux : New York, 1998, pp. 1~417.

Radin, Paul.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 New York, 1956, pp. 1~211.

Erdoes, Richard and Ortiz, Alfonso. *American Indian Trickster Tales*, Penguin Books : New York, 1999, pp.1~296.

Doty, William G. and Hynes, William J. "Historical Overview of Theoretical issues; the Problem of the tricksters," Doty, William G. and Hynes, William J. (Eds). *Mythical Trickster Figure- 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3, pp. 1~265.

Levi-Strauss, Claude. *Structural Anthropology*, Penguin Press, 1968, pp. 206~231.

논문투고일: 2013.9.30. 심사완료일: 2013.11.30. 게재확정일: 2013.12.10.

Abstract

Understanding Trickster through Creation Myths of Korea

Shin, Yeon-Woo

The creation myths of Korea has the motif of 'Governor-deciding game'; the main motif is the 'blooming flowers', which SeokKa secretly robbed Miruk of the flower and is to govern this world, and consequently evils came into existence.

I summed up the aspects of creation myths in two. Firstly, Miruk/SeokKa or Taeyolwang/Sobyolwang made this world for people mellow out. Secondly, we have absurdity and evil by the roots in this world.

These are contradicted each other and coexist at the same time. Korean creation myths tell us that it is this world in which good coexist with evil in itself. In Korean Creation Myths, malicious Miruk is the very co-worker of the Creation. That explains why we have evil, absurdity, crime all the time in this world.

We see the depth of cognition which our ancestors had when they look into the man and world in itself. They saw good in evil and evil in good. It is multiphasic awareness of this world.

We also have extracted various and contradictory aspects of tricksters:

- (1) He is a creator and failure.
- (2) He stand in the liminal space and has double face.
- (3) He is good at tricks and transformation.
- (4) He is a perfect picture of avarice, sexual desire.

When we consider a trickster as a mythic archetype, it could reach as far as the mythic archetype. The order of this world and the chaos accompanied by shown in the creation myths of Korea help us understand the duplicity of the trickster type character in the history.

Our world cultivates social order through continuous creation and the creation also begets evil and disorder at the same time. It is the true picture of our world and so is the human being. That is why there are tricksters in all over the world.

As the world and society change, not fixed, so the good and order are not to be fixed. All the people who want to prepare new order of society, facing against the stiffened order and good, are the very tricksters.

Key words : Korean Creation Myths, Governor-deciding game, trickster, good and evil, duplicity, liminal space, trickery